

마스크 대란 해소? ... 3월 초에 풀린다

보건용 마스크 판매예고 안내문

농협은 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공적판매처로 지정되어 물량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물량 확보 즉시 공지하겠습니다.

■ 판매처: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및 농협몰(온라인) (1인당 판매수량 제한 예정)
■ 「농협몰」 앱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은 회원가입 필수

OO농협하나로마트 점장

26일부터 광주·전남지역 하나로마트 386개와 우체국 339개에 마스크가 우선 공급되기로 했지만 이날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들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하나로마트 측은 각 지점에 붙인 마스크 판매예고 안내문. <농협 광주본부 제공>

식약처, 대구·경북 지역에 100만개 최우선 공급 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 물량 공급 안돼 소비자 혼선

정부가 26일부터 마스크를 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 등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지만 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소비자들 혼선을 겪었다. 지역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측은 3월 초에나 마스크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6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하나로마트 386개(광주 33개·전남 353개)와 온라인 농협몰 등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 공적판매처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매일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물량 약 500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체 감상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 첫날 소비자들은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약국 등을 찾았지만 확보된 물량이 없어 헛걸음을 했다. 농협몰과 우체국쇼핑몰도 접속이 뜰수록 연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나로마트 측은 '보건용 마스크 판매예고 안내문'을 각 지점에 붙이고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물량을 확보하면 즉시 공지하겠다"고 안내했다.

광주지역 한 농협 관계자는 "오전부터 마스크를 살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잇따랐다"며 "물품을 받기 전에 정부 발표가 먼저 나와 소비자들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마스크를 찾았지만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고 말했다.

광주 86개·전남 253개 등 339개의 우체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남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마스크 공급 업체를 구하고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며 "마스크가 본부 측에 전달되더라도 우체국쇼핑몰부터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와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 판매 가격과 1인당 구매 제한량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 판매 가격과 1인당 구매 제한량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 판매 가격과 1인당 구매 제한량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 판매 가격과 1인당 구매 제한량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 판매 가격과 1인당 구매 제한량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제철 수산물 맛보세요” 26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지하 1층에서 제철 수산물인 갑오징어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낙지, 바지락, 도미, 홍어, 전복, 감성돔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 특집전'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우리아이 안심 먹거리 비싸도 유기농 식품 골라요

이마트 전년비 8.7% 상승

안심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역 유기농 식품 매출이 증가했다.

26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0~20일 유기농 신선식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올랐다. 마찬가지로 유기농 가공식품 매출도 5.2% 증가했다. 유기농 식품 매출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매장에서 유기농 신선식품은 과일과 양곡이, 유기농 가공은 유제품과 유아용 식품이 인기다.

유기농 과일은 일반 과일에 비해 15~20% 정도 비싸지만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유기농 쌀과 영양곡은 쌀 소비 감소세에도 꾸준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의 유기농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판매비율은 각각 53%와 47%로 나타났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유기농 당근주스, 유기농 제주감귤 주스 등은 직장인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상품준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물 안심하고 마시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물 속 질병 유발균을 99% 살균하는 전해수기를 9층 가전 전문관에서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마트 오늘부터 일주일간 탐라향 할인 판매

광주·전남 9개 롯데마트가 27일부터 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만감류 할인 판매를 한다.

롯데마트는 이 기간 동안 국산 청견견렌지와 흥진조생감귤 품종의 고품종인

‘탐라향’ 1.2kg 한 팩을 9980원에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탐라향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과즙이 많으며 껍질 벗기기가 쉬워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젤리 모양의 잼 ‘마말레이드’와 머핀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롯데마트는 전혜향, 한라봉, 진지향, 감귤 등 만감류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 기간 동안 국산 청견견렌지와 흥진조생감귤 품종의 고품종인

새콤·달콤·상콤... 딸기 사랑 빠지다

대형마트·백화점·카페 등 유통가 ‘딸기 마케팅’ 진행

유통가가 제철 맛은 딸기에 빠졌다. 대형마트 과일 매대에는 딸기가 전면 배치됐고 백화점·커피전문점·호텔 등 유통업계 전반에서 ‘딸기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26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딸기 매출은 전년보다 11.7% 올랐다. 지난해 이마트에서 딸기는 바나나를 제치고 사과·감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팔렸다.

이마트는 ‘국민 과일’ 반열에 오른 딸기 상품을 기존 2~3종에서 올해 5~1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딸기 존’(Zone)을 별도로 구성해 진열 면적도 대폭 확대했다. 최근에는 영국 ‘웨이트로즈 더치 오가닉’과 손잡고 유기농 딸기잡인 웨이트로즈 더치 유기농 딸기 프리저브(340g)를 선보이고 있다.

전진복 이마트 과일구매 담당자는 “큰 딸기부터 작은 딸기까지 한꺼번에 매일매일 가격을 낮추고 용도별로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광주 53개·전남 17개 매장을 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딸기를 내세워 한국에서 출시된 음료를 다시 내놓았다. 스타벅스코리아의 대표 메뉴인 ‘슈크림 라떼’는 2017년 출시 당시 100만잔이 팔리며 인기를 모았다.

이번에는 딸기와 슈크림을 조합한 ‘딸기 레이어 슈크림 프라푸치노’와 버터 크림과 딸기잼을 넣은 ‘딸기 앙모스’를 새로 선보였다.

스타벅스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3월9일까지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그린, 골드 회원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스타벅스카드로 ‘딸기 레이어 슈크림 프라푸치노’ 등 이벤트 음료 3종 가운데 한 잔을 사면 품목당 이벤트 별 3개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역 유통가도 ‘딸기’를 활용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월1일까지 ‘입맛을 돋구는 제철식품 제안’전을 통해 딸기 1kg 한 팩을 1만5000원에 내놓는다.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 인 광주는 오는 29일까지 두 달 동안 ‘스트로베리 애프터눈 티 세트’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월1일까지 ‘입맛을 돋구는 제철식품 제안’전을 통해 딸기 1kg 한 팩을 1만5000원에 내놓는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